

'17명 사상 붕괴 참사' 원인 곧 드러난다

경찰, 국과수 감식 통보 뒤 최종 검토 거쳐 7월 내 발표

국토부 사조위도 내부 이견 조율 거쳐 8월 결론날 듯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사고의 원인 및 구체적 경위 가 곧 드러난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분석 내용을 넘겨 받는 대로, 붕괴 참사의 원인·경위를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가 오는 23일까지 최종 감식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마지막째 주인 26~30일 사이에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국과수는 참사 당일부터 수시로 벌인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붕괴 당시 상황을 재현, 붕괴 전후 상황과 자세한 사고 경위를 검토·분석하고 있다.

경찰도 수사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붕괴 요인을 파악했다.

현재 드러난 붕괴 요인은 ▲지하층 내 '밥' 부실 설치 ▲수직·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흙더미 활용 하향식 압쇄) ▲작업 절차 무시 철거(후면·저층부터 압쇄) ▲건물 지지용 쇠줄 미설치 ▲과도한 살수 ▲굴착기 무게 ▲흙더미 유실 등이다.

특히 경찰은 붕괴물 지하층 공간 안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흙더미'(밥)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역시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조위는 건축시공·구조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 기관이다.

사조위는 활동 기한인 오는 8월 8일까지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벌인다. 현재까지 건축물 도면, 붕괴 전후 사진, 현장 실측 결과, 공사 관계자 청문 기록, 경찰·국과수 기록 공유 내용 등을 확보, 분석하고 있다.



사조위는 건축물에 작용한 힘(외력)과 건축물이 저항한 힘(내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계량화한다.

가급적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되, 필요에 따라 선 근거를 갖춘 추산치를 적용한다.

이후 전문 구조 해석 프로그램에 수치화된 변수를 입력, 붕괴 당시 상황을 시험 재현한다. 이른바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정확한 붕괴 경위를 놓고 건축구조기술사가 중심이 돼 검토·토론을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

최근 사조위 내에선 붕괴 참사의 자세한 경위를 설명할 가설을 놓고 이견이 엇갈려, 분석 내용 등을 두루 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합의 도출 시점이 활동 기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다음달 중 확보할 사조위의 분석 결과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건자 8명에 대한 송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통보 받는 즉시 최종 검토를 거쳐 참사 원인에 대해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 사조위 조사 결과 등도 참사 직접 책임자의 사건 처리에 충분히 감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여수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및 이륜차 집중단속 실시

여수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이달 15일 전국 일제 음주단속을 시작으로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접촉감지기를 활용하여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주·야간을 불문하고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가용경력 최대 투입하여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번갈아가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며 또한 '자형 단속'과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휴가철,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각 지역별로 지역경찰관사에서 수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여수=오상호 기자

나주경찰, 피서철을 맞아 물놀이장 내 불법카메라 점검

나주경찰서는 성범죄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지난 16일 물놀이장(중흥골드스파&리조트) 내 불법카메라 점검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물놀이장(중흥골드스파&리조트) 내, 특히 화장실·탈의실 등 불법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전문 탐지 장비를 이용해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시설 종사자에게 불법카메라 식별법에 설명하고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상철 경찰서장은 "불법촬영은 중대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며,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확대하여 성폭력 예방 및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경찰서, 아동실종 예방 위한 지문등사전등록 실시

장흥경찰서는 18세미만 아동청소년 실종예방을 위하여 2021. 7. 14. 10:00경 장흥읍에 위치한 동화어린이집을 방문 하여 70여명의 아동에 대한 지문등록, 사진등록 등 찾아가는 지문등사전등록을 실시하였다.

최근 아동 및 노인 실종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문등사전등록은 아동 및 노인이 실종되었을 때 대상자의 사진, 지문 등을 보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장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장흥군 모든 아동, 청소년이 사전등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흥=김도영 기자

담양소방, 현장대원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육

담양소방서에서는 15일 박상대 소방서장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분서 대회 의실에서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대면교육과 각 안전센터를 방문하여 현장대원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각부서 과장·팀장, 직할센터, 구조대, 내근직원 100여명에게 최근 두달 새 현장활동 중 3건의 연이은 순식사고 발생으로 대책 마련과 현장 활동대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실시 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안전사고 사례와 각 부서별로 현장활동 안전관리 대책 발표와 현장활동시 안전관리 방안을 상호 토론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특히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활동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적 소방활동을 수행하면서 평상시 훈련과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현장 안전판단 능력 향상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상대 소방서장은 "우리 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현장대원들의 안전이 전제 되어야만 도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조카 물고문 모자라 "개똥 먹으라" 강요한 이모부 징역 40년

검찰, 이모는 무기징역...이모부 징역 40년 각각 구형

10살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부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욱)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A(10)양의 이모 B(34·무속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모부 C(33·국약인)씨에 대해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대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없이 집에서 매일 맛고 개똥을 먹고 학대를 당하고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구타를 당하면서 온몸에 피하출혈이 심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B씨 부부는 손발을 묶고 피해자 머리를 욕조에 넣으면서 게임을 하듯이 숫자를 세고 그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

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욕조에서 피해자 머리를 세게 눌렀는지 이빨이 빠져 식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살해 의도 없었다,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B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B씨 부부는 올해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A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의사로 사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A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 신체적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B씨 부부는 지난 1월 20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A양을 학대할 당시 각각 13살, 5살인 친자녀 2명에게도 이를 목격하게 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5차 공판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날 B씨 부부 변호인 측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재판부에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A양 사망 당일 B씨 부부가 119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B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

며 인근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A양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B씨 부부를 긴급 체포한 뒤 이들을 추궁한 끝에 학대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고, 지난 2월 검찰에 B씨 부부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B씨 부부를 재판에 넘긴 뒤 이날까지 결심공판을 포함해 총 6차례 공판기일을 갖고 재판을 마쳤다.

검찰은 지난 달 8일 열렸던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B씨 부부가 A양에게 저지른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 증거물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공개한 증거물 영상에는 B씨가 A양에게 흰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개똥을 주며 소리를 치면서 이를 먹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이 담겨 있었다.

서선욱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